

여권 입장 변화... 세월호 인양 '급물살'

당정청 회의 "조속 인양 검토"... 세월호 참사 특위 공식 일정 시작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인양이 빠른 시간 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등 여권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삼정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열어 세월호 인양 문제와 관련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당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며

"세월호의 상체를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 문제도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인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세월호 인양 결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도 진도 팽목항을 찾아 특위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석태 위원장, 조대한 부위원장, 권영

빈·박종은·김선혜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은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 내 영정 앞에서 현화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위의 활동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왜 커다란 여객선이 침몰했는지, 왜 희생자들에 대한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설립과정에서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과 권영빈·박종은 위원은 이날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한 후 배를 타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사고해역을 돌아봤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선체가 온전하게 인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세월호 선체가 가라앉아 있는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해상에서는 침몰 선박 상황에 대한 기초 탐지조사가 진행중이다.

각종 탐사 장비를 투입해 확보한 자료는 영국 ADUS사, 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원의 공동 분석을 거쳐 세월호 인양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구체 자료는 이달 중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화순 이서적벽투어' 21일 재개

화순군은 "21일부터 매주 3차례씩,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매주 수·토·일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30분 운영한다.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2주일 전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화순군청 홈페이지 또는 화순적벽 투어 홈페이지(<http://tour.hwasun.go.kr>)에 접속, 1인당 5천원의 교통비를 납부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적벽 입구와 금호화순리조트, 옛 이서중학교 등 3곳에서 탑승할 수 있다.

화순군은 진입도로 정비, 인근 관광지 연계코스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객 맞이에 힘썼다.

화순적벽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으나 화순군과 광주시의 합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개방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김기종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자택·사무실서 서적 등 219점 압수 전문가 감정 의뢰

지난 6일 구속 수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기종(55)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8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품 중 북한에서 발간된 책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행물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30점에 대한 이적성 감정을 전문가 집단에 의뢰했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씨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적·간행물·유인물 등 표본물 48점, 휴대전화·PC·USB 등 디지털 증거물 146점 등 총 219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적 48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해 모두 30점에 대해 자체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에도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북한 서적을 소지한 경우에 대해 자신이 북한을 연구하는 석사과정에 있고,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 문건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오후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25cm 크기의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점 등을 미루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고 리퍼트 대사에 사과하는 한편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연한 리퍼트 대사 "한미관계·우호 더 강화되길"

병문안 온 여야 대표에 화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의연한 태도가 연일 화제다. 미국과 가장 끈끈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흉기피습이라는 불행에도 불구하고 리퍼트 대사는 연일 양국의 굳건한 관계를 강조해 주변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는 8일 "이번 사건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공격(attack)"이라면서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병문안 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한미관계와 양국 국민의 우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이 전했다.

"완쾌된 다음 소주 한잔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말에 리퍼트 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Absolutely)"고 화답했다. 리퍼트 대사 고향인 미 오하이오주(州) 출신 인사들이 세브란스병원을 세웠다는 의료진의 설명에는 "세계가 굉장하 작다"며 "(병원이) 고향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병문안 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는 "이번 사건이 양국관계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밝혔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병문안을 다녀갔다.

리퍼트 대사의 모습은 지난 1964년 3월 도쿄의 주일 미국대사관을 나서다 정신 질환이 있었던 19세 일본 청년에게서 허



제임스 원펠드 미 합참차장(오른쪽)이 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제공>

벽지를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긴급 수혈을 받게 되자 "이제 내 몸에도 일본인의 피가 흐르게 됐다"는 성명을 발표해 당시 화제가 됐던 에드윈 라이샤워 대사와의 다툼을 끌어내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리퍼트 대사가 해군 특수부대인 실(SEAL) 정보장교 출신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2005년 해군의 직접임관장교(DCO)

프로그램에 따라 예비역 소위(정보 특기)로 임관 후 당시 상원의원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자문 보좌관으로 있다가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내이비실로 유명한 해군특수전사령부에 소집됐다. 그는 흑독하기로 소문난 기초수중파괴/특공훈련(BUD/S)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실제 임무에 투입되는 요원이 아니라 지원 부서 파견자여서 이 과

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수술을 집도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7일 "월~화요일에 걸쳐 얼굴의 살갓을 제거한 뒤 수요일 정도에 퇴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6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리퍼트 대사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지명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새누리당 추천 몫·사진)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민정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변호사는 대검 검찰 1·2 과정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검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국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 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검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062)368-1700